



Some Experiences of Visiting British and Japanese Libraries

英國 日本圖書館界를 돌아보고

金 光 永
 外交安保研究院圖書課長

1978년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영국의 British Library,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국제도서관 실무자회의(ITSS 78)와 영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한 Brighton회의(Study School & 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한 경험과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일본의 國立國會圖書館, 東京大, 一橋大, 東京學藝大, 慶應大(醫學)圖書館, 外務省圖書館, 國際問題研究所 그리고 일본주재 미국대사관 국제교류국 도서실방문에 관한 경험을 여기에서 소개함으로써 세계속의 한국도서관의 위치, 문제점, 개선방안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대체로 도서관의 진정한 이해를 위하여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고, 소속된 기관을 알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언제나 핵심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번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만큼 하루 하루를 뜻있게 보내려고 하였다.

1. British Library

영국의 중앙도서관에 해당하는 British Library는 참고업무를 주로하는 Reference Division, 서지업무를 주로하는 Bibliographic Services Division, 대출업무를 주로하는 Lending Division(York에 위치함), 연구를 주로 하는 Research & Development Dept와 행정업무를 주로하는 Central Administr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eference Division은 간행물을 취급하는 Dept. of Printed Book과 귀중본을 취급하는 Dept. of Manuscripts와 과학관계 도서관인 Science Reference Library와 동양관계 도서관인 Dept. of Oriental Manuscripts & Printed Books으로 구성되어 있고, Dept of Printed Books에는 또한 Library Association Library가 소속되어 있다.

British Library는 매우 방대한 도서관인 만큼 지면 관계상 그 전모를 여기에서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

나라 도서관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Dept. of Printed Books에 소속된 열람실(대영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이곳이 운동장인지, 광장인지 열람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곳의 장서수는 약 7백만권, 연간 증가도서수는 50만권이며, 열람좌석수는 785석이고, 건물구조는 Dome양식이고, 중앙에는 참고사서실, 참고도서류, 목록함, 열람실이 칸막이 없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도서로서 가득찬 서가가 놓여져 있었다.

British Library의 Lending Division은 축차간행물 130,000種, 도서류 1,700,000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축차간행물은 연간 50,000種, 도서류도 연간 60,500권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니만큼 분류를 하지 않고 축차간행물과 단행본은 각각 서명의 Alphahei순으로 배열하여 놓았다. 이곳에서는 International Lending Service와 Overseas Photocopy Service를 수행하는만큼 그 가격이 비싼편이며, 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도서 및 축차간행물의 서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편리하다.

Dept. of Oriental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도서관은 中國, 日本, 韓國關係資料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圖書館長은 G.E. Marrison박사로서 1976년 서울에서 열린 IFLA World Wide Seminar에도 참석하였고, 한국의 역사,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관계도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Oxford대학에서 교육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鄭美玲氏가 담당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현재 국회도서관, 서울대, 이대, 연대도서관 등과 교환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며, 한국에서 간행된 質 높은 한국관계서적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료교환을 수행하고 Oxford대학, Cambridge대학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British Library에서는 BLAISE(British Library Automated Information Service)가 있어서 U.K.

MARC를 개발하여 MEDLINE, SDILINE, TOXLINE, LCMARC와 연결된 System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명표목은 PRECIS(Preserved Context Indexing System)을 이용하고 있다. 아직도 전통적인 冊子型 目錄도 보유하고, 또한 활용하고 있다.

2. ITSS 78

이 회의는 제3회 International Travelling Summer School로서 그 기간은 78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인데, 참가국과 인원은 17개국 32명이었다. 영국의 Edinburgh, Lancaster, Liverpool, York, Norwich, London, Brighton, Oxford 등에 있는 주로 대학교 기숙사에서 대체로 3일간씩 머무르면서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교환을 하였다. 국제적인 모임이니만큼 언제나 “나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장구한 역사와 찬란한 文化와 고유한 言語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영국을 비롯한 외국인은 한국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관심도 없었다. 이번 여행의 출발전에 도서관잡지를 읽고 영국도서관의 현황, 장점, 단점, 문제점 등을 공부하였으므로 비교적 쉽게 질문을 할 수가 있었고, 관심도 끌 수 있었다.

영국정부에서도 이 회의에 대하여 비교적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Liverpool시장인 Lord Mayor of Liverpool의 영접파티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회의를 통하여 도서관업무의 파악은 물론, 영국도서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참석한 17개국의 도서관 직원과 22일간 함께 생활하는데에서 오는 우정과 사고방식,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유익하였다.

영국사람들은 역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유산, 예를 들면 St. Andrews의 12세기에 창설된 교회, Edinburgh의 성곽, Lincoln성당의 귀중도서전시, Norfolk에 있는 Blicking Hall의 귀중도서전시, Lancaster에 있는 St. Mary교회와 성곽, York의 Minster성당, Brighton의 Royal Pavilion 등은 아주 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또한 영국사람, 특히 Scotland사람들은 정열적이고, 즐을 사랑하며, 친절하였으며, Lake District와 Norwich에서의 선박파티와 Morecame, Brighton의 야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영국에 있어서는 대학도서관보다는 공공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 Branch Library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Portsmouth 시립공공도서관은 시청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시설, 장서, 직원 등이 시청과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Cumbria County

Library에 소속된 Branch Library의 司書의 이용자에 대한 친절한 태도가 감명깊었다.

대학도서관, 예를들면 Cambridge, Oxford대학도서관(Bodleian Library)은 그 규모와 장서수, 직원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독립된 分糖圖書館이 많았으며, 책자형 목록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자목록, 분류목록, 주제색인카드목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도서관, 예를들면 Univ of East Anglia도서관에는 주제목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최근 구입되는 도서는 서명목록이 있었으나, 대체로 서명목록과 주제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영국도서관의 목록 형태를 보면 책자형 목록, 카드목록, Microfilm목록, Terminal Screen을 통한 목록 등이 있다.

영국의 대부분의 도서관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건축양식이 전통적인 건물이었으며, 많은 공공대학도서관에는 귀중본, 예컨대 Gutenberg의 初期出版圖書(Blicking Hall도서관), Magna Carta의 원본(Lincoln Cathedral도서관)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中央圖書館에서 一元化하여 관리한다기보다는 分館圖書館의 역할이 중시되어 그 나름대로의 분류, 목록 등의 업무가 계속되어 장서수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각컨대 영국도서관에 있어서도 目錄의 標準化問題가 심각한 것으로 안다.

3. 영국도서관협회 회의

1978년 9월 11일 영국도서관협회 회의의 위원장인 Godfrey Thompson씨의 “하나의 세계(one world)”라는 개막연설이 있었는데, 그 골자는 비록 각국의 공공, 대학, 특수도서관은 그 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수한 방식의 분류, 기술목록 등의 방식이 답습되어 과거에는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미래에는 도서관업무가 일반화되어 모든 도서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관심이 있었던 모임은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ibrarianship Group과 Cataloging and Indexing Group이었는데, 前者에서는 영국도서관 및 출판사, 그리고 British Council이 개발도상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유도하여 왔는가하는 점을 포착할 수가 있었으며, 後者에서는 AACR 2의 구조, 말하자면 개인저자, 단체저자의 표목문제와 AACR 1과의 변화점,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참가한 인원이 약 800명이었는데, 그 규모와 진지한 강연자의 자세와 자유스러운 토의는

4. 日本圖書館界

가. 日本國立圖書館

이 도서관은 總務課, 收書課, 整理課, 대출과, 참고서지과, 상호대차과, 조사·입법참고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서수는 2,866,956책이며, 축차간행물은 26,659種(1974년 통계에 의함)이다. 漢字情報處理 System을 개발하여 會議錄總索引, 和雜誌目錄, 海外科學技術資料月報, 納本週報, 月報, 季報, 年報, 總目錄等を Toppan Computer를 利用하여 出力·印刷하였다고 한다. 電算室에는 15명의 Programmer와 13명의 Key Puncher와 18명의 원고작성(work sheet)과 교정을 하는 사람이 일하고 있으며, 入力時에만 ISBD의 Punctuation mark를 사용하여 일본의 カナ順으로 배열하는, 이른바 Japan MARC System을 개발하였다.

또한 國立國會圖書館은 우리나라의 國會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과 긴밀한 자료교환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나. 東京大學 圖書館

東京大學 圖書館은 中央圖書館인 總合圖書館과 各學部, 研究所 圖書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도서관 장서수는 4백만책이며, 전체도서관 직원은 400명이고, 總合圖書館의 장서수는 600,000책이고, 직원은 96명이며, 各學部, 研究所의 圖書館은 75個에 이른다고 한다. 생각컨대 總合圖書館보다도 各學部, 研究所 등의 分館圖書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들면 經濟學部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경제관계의 귀중본도서, Adam Smith의 Collection, 동전(Coin) Collection과 경제관계의 정부간행물, 단행본, 학술잡지 등을 미루어 보아도 그렇다. 또한 동경대학정보도서관학연구 Center에서는 “학술잡지 종합목록 자연과학편과 人文社會科學歐文編”을 Computer를 이용하여 出力인쇄하였고, 작업중에 있다.

다. 기타의 圖書館

東京學藝大學 圖書館은 장서수는 532,714책이며, 學術雜誌는 5,081種을 수장하고 있으며, 대출업무와 도서수입업무에 On-line Real-time Processing으로 Computer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一橋大學 圖書館은 건축양식이 전통적인 西歐式이고, 훌륭한 社會科學分野의 資料를 수장하고 있으며, 귀중도서에 대한 특수한 시설을 하여 그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慶應大 醫學圖書館은 단행본이 34,586책이고, 계본된 잡지 93,023책이며, 비도서자료가 3,078종이다. 학술잡지의 연간 구입은 1,062종, 기증·교환자료 885종, 기

타 48종이다. 그리고 國際醫學情報 Center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JICST와 연결되어 MEDLINE, CAC等を Terminal를 통하여 검색, 出力하고 있다.

영국에는 中央圖書館으로서 British Library가 있고, 日本에는 또한 國立國會圖書館이 있어서 전체적인 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위하여 U.K MARC System, Japan MARC System를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Network을 구성하리라고 추측된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영국도서관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은 학문탐구, 연구도서관으로서 발전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그 위치에 있어서 예컨대 시청 옆에 위치하여 쉽게 도서관에 갈 수가 있고, 특히 어린이 도서관실이 증시되고, 시장에 물건사러 갔다가 부인들이 책을 대출하는, 이른바 도서관과 그들의 생활은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日本國立圖書館에서는 Japan MARC System을 개발하여 入力時에만 Punctuation mark를 사용하고, カナ順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생각컨대 韓國, 日本, 中國等 漢字를 使用하는 국가간에 있어서 未來에는 Network를 구상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日本圖書館見學에 있어서 一橋大學附屬圖書館 事務部長 田邊廣氏, 東京大學附屬圖書館 事務部長 藤井和夫氏, 整理課長 淺野次郎氏, 國立國會圖書館 國際協力課 上野博氏, 日本주재 美國大使館 國際交流局 圖書館長 Ms. Alice M. Lage 등의 협조가 컸음을 밝히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여행을 허락하여 주신 외교안보연구원 장 영훈원장, 김 세진실장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